

## 2021년 제1차 등금심의위원회 회의록

1. 회의일시 : 2021년 01월 25일(월) 14:00
2. 회의장소 : 우송관 5층 회의실
3. 참석현황 : 재적의원 10명 중 9명 참석
3. 회의안건 : . 2021학년도 학부/대학원 등록금 책정(안) 심의  
. 2021학년도 학부/대학원 정원 외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책정(안) 심의  
. 2020학년도 교비회계 제2차 추가경정 자금예산(안) 심의  
. 2021학년도 교비회계 자금예산(안) 심의

위원장(박승익) : 바쁘신 시간을 내주신 위원 여러분에 대한 감사를 표하고, 총무처장에게 성원 보고를 듣겠습니다.

총무처장(조을연) : 등록금심의위원회규정 제8조에 따라 재적의원 10명 중 9명이 참석해 주셔서 회의 요건이 성원 되었습니다.

위원장(박승익) : 금번 회의의 안건은 2021학년도 학부/대학원 등록금 책정(안) 심의 및 2021학년도 학부/대학원 정원 외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책정(안) 심의, 2020학년도 교비회계 제2차 추가경정 자금예산(안) 심의 및 2021학년도 교비회계 자금예산(안) 심의 등 4건 입니다.

- ▣ 2021학년도 학부/대학원 등록금 책정(안) 심의  
2021학년도 학부/대학원 정원 외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책정(안) 심의

위원장(박승익) : 먼저 2021학년도 학부 및 대학원 등록금 책정(안)과 2021학년도 학부 및 대학원 정원의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책정(안)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. 총무처장님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.

총무처장(조을연) : 우리 대학은 최저임금 인상과 물가상승으로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상승 등 등록금 인상요인이 많지만,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하고, 학부 등록금의 경우 입학금은 전년대비 13만원 인하하고 수업료는 동결하는 책정(안)을(입학정원 가중평균 0.25% 자동 인하) 제시합니다. 또한 정원 외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은 전년과 동일하게 달러를 기준으로 입학금과 수업료 동결(안)을 제시합니다.

대학원 등록금의 경우 입학금은 동결하고 수업료는 입학정원 가중평균 기준 1.19% 인상하는 책정(안)을 제시합니다. 또한 정원 외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도 달러를 기준으로 입학금은 동결하고 수업료는 입학정원 가중평균 기준 1.19% 인상하는 책정(안)을 제시합니다. 2021학년도 학부 및 대학원 등록금 책정(안) 및 정원 외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책정(안)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.

(이어 배포된 유인물의 내용을 설명하다.)

위원장(박승익) : 총무처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.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위 원(김현재) :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수업이 확대되면서 디지털 강의실 구축 등 교육의 질 개선 및 인건비 상승과 물가 인상으로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은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. 이제는 교육부에서 공시하는 인상 한도 내에서 등록금 인상을 검토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.

총무처장(조을연) : 등록금은 12년간 인하 또는 동결하고 있습니다. 그럼에도 교육부에서 공시하는 인상한도 내에서도 인상하지 못하는 것은 각종 평가와 국가장학금과 연계되어 있어 학교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게 되고 국가장학금이 줄어들면 결과적으로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될 것입니다.

위 원(윤여동) : 금년에는 학교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신입생모집에서 정원을 채울 것으로 예상되지만,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 유학생 입학자가 감소하면 학교의 재정적 어려움으로 연결될 것으로 보여 대학원 수업료 인상은 필요해 보입니다.

총무처장(조을연) : 고등교육법이 개정되면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항의 재난이 발생할 경우 등록금 면제·감면과 관련한 사항을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갑작스런 개강 연기와 실시간으로 온라인수업을 진행하기는 했지만 여러 혼란이 있어 특별장학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. 학교에서는 온라인 수업의 질 개선을 위해 많이 LMS 시스템 정비와 온라인 강의실

준비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. 학칙에서 정한 수업일수를 충족하고 실시간 수업 또는 동영상 수업 등 대면·비대면 등의 방법으로 수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 진다면 재난 상황이라도 추가적인 등록금 면제·감면이 어려운 재정 여건 입니다.

위 원(이현수) : 2020년에는 모두가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19로 인해 갑자기 진행된 온라인 수업 등으로 많은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학교에서도 학생들을 위해 특별장학금을 편성하여 지급하였는데, 그동안 수업의 질 향상을 위해 학교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에 2021년에는 재난으로 인해 수업일수가 줄어들지 않고 온라인 및 대면수업 등 다양한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되어 수업일수가 충족된다면 등록금 면제·감면과 관련한 예산은 추가로 집행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

위 원(변재중) : 학교에서는 타 대학에 비해 수업환경 개선을 위해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. 한편으로는 등록금이 인하되면 좋겠지만, 물가상승과 최저임금 등 인건비는 상승하는 데에 반해 등록금은 동결되고 재학생 수는 줄어들고 있으니 학교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학생들의 양해가 필요해 보입니다.

위 원(조을연) : 대학의 교직원 등 구성원들은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,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완화를 위해 분할납부제, 신용카드 납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. 정원 외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은 달러를 기준으로 책정하기 때문에 회계 처리시 1달러당 1,000원의 환율로 등록금 수입으로 인식하고 환율 차액일 외환차손익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.

위원장(박승익) : 코로나 <sup>뿐만 아니라</sup> 학령 인구 감소 등 여러 가지 여천인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. 학생 대표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?

위 원(이상협) : 9년 연속 등록금 인하 또는 동결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학부 입학금 13만원 인하 및 수업료를 동결하고, 대학원의 경우 등록금 인상을 최소화하여 제시해 주시고 온라인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것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
위 원(윤여동) : 학교측에서 제시한 학부 입학금 13만원 인하 및 수업료 동결(안)과 대학원 입학금 동결 및 수업료 1.19% 인상(안)에 대해 동의하고, 학부 정원 외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달러 기준 전년대비 입학금 및 수업료 동결(안)과 대학원 정원 외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입학금 동결 및 수업료 1.19% 인상(안)에 대해 동의합니다.

위원장(박승익) :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?(위원 전원 재청하다.) 학생위원을 비롯하여 위원님들의 동의와 재청에 따라 2021학년도 학부 입학금 13만원 인하 및 수업료 동결(안)(입학정원 가중평균 0.25% 자동 인하)과 대학원 입학금 동결 및 수업료 1.19% 인상(안)(입학정원 가중평균)이 심의·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

또한, 정원 외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은 달리 기준 학부 입학금 및 수업료 동결(안)과 대학원 입학금 동결 및 수업료 1.19% 인상(안)이 심의·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

▣ 2020학년도 교비회계 제2차 추가경정 자금예산(안) 심의

▣ 2021학년도 교비회계 자금예산(안) 심의

위원장(박승익) : 다음은 2020학년도 교비회계 제2차 추가경정 자금예산(안)과 2021학년도 교비회계 자금예산(안)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. 총무처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위원(조을연) : 2020학년도 교비회계 제2차 추가경정 자금예산(안)은 재학인원 변동, 국고보조금, 기타 등록금회계 및 비등록금회계의 수입 및 지출 증감 등의 사유로 예산을 변경하고자 사학기관 재무·회계에 대한 특례규칙에 의해 편성하였음을 설명하다.

2021학년도 교비회계 자금예산(안)은 심의해 주신 학부 입학금 13만원 인하 및 수업료 동결(입학정원 가중평균 0.25% 자동 인하)과 대학원 입학금 동결 및 수업료 1.19% 인상(입학정원 가중평균)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.

(이어서 기 배포된 유인물을 통해 2020학년도 교비회계 제2차 추가경정 자금예산(안) 및 주요사업비와 2021학년도 교비회계 예산편성(안)에 및 주요 사업비에 대해 설명하다.)

위원장(박승익) : 총무처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.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위원(김현재) : 타 대학도 지속적인 학생수 감소와 등록금 동결로 인하여 교직원 인건비를 삭감하는 등 예산에 문제가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. 결국은 우수한 교원을 확보해서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하는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

위원(윤여동) : 2020년과 2021년 예산(안)을 보면 학부 입학금을 인하하고 수업료를 동결하였음에도 코로나19로 인한 재학인원 감소와 여름 및 겨울학기 자율화로 인한 등록금 수입이 감소되는 상황에서도 최저임금 인상 및 각종 지표 유지를 위한 인건비와 장학금 부담이 많은 것 같습니다.

위 원(김현채) : 2021회계연도에도 재정 결손이 예상되는데 학교 측에서는 어떻게 대처가 이루어지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.

위 원(조을연) : 학교에서는 재정 결손 해소를 위해 관리운영비 및 소모성 경비 절감을 위해 많은 노력하였음에도 적립금을 인출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. 학생 교육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은 반영하여야 하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통해 인건비 예산을 줄이는 방향을 채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. 그 외에는 학교운영비 예산을 긴축 운영하여 절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
위 원(이현수) : 우송대학교는 국제교류가 특성화된 대학으로 모범이 되고 있다고 보입니다. 코로나19가 잘 극복되고 그동안 쌓아놓은 해외 대학들과의 교류 협력을 강화해서 많은 유학생을 유치한다면 재학생 감소와 등록금 동결 등으로 인한 재정적인 어려움을 해결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.

위 원(조을연) : 우송대학교는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국고지원사업에 선정되어 교육의 질 개선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

아울러, 2021학년도 본예산 등록금회계 전년도 잉여금 예산을 전년과 마찬가지로 최소화하여 5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, 2020학년도 결산 후 잉여금 예산을 초과하여 이월될 경우 학생지원비 등 직접교육비로 활용하고자 합니다.

위원장(박승익) : 코로나19로 인한 휴학생 감소와 외국인 유학생 모집에 어려움이 있어 재정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학생 대표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?

기성겸, 이현수, 조을연, 김현채

위 원(이상협) :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 수주와 창업 및 글로벌 인재양성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예산을 편성해 주신 것 같습니다.




위 원(이현수) : 입학금 인하 및 수업료 동결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인건비 부담과 각종 사업 수행을 위해 운영비 절감을 통해 긴축 재정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. 2020학년도 교비회계 제2차 추가경정 자금예산(안)에 대해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또한, 2021학년도 교비회계 자금예산(안)에 대해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위원장(박승익) :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? (위원 전원 동의에 재청하다.) 위원님들의 동의와 재청으로 2020학년도 교비회계 제2차 추가경정 자금예산(안)과 2021학년도 교비회계 자금예산(안)에 관한 심의 결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

위원장(박승익) : 오늘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 내용을 회의록으로 기록할 것이며, 양해해 주신다면 변재중 위원, 조을연 위원, 이상협 위원을 대표 서명자로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? (위원 전원 : 이의 없습니다.)

바쁘신 와중에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, 등록금심위원회 폐회를 선언하고 회의를 종료하겠습니다.

2021년 1월 25일

위 원	변 재 중	
위 원	조 을 연	
위 원	이 상 협	

박승익

12/25

변재중

## 등록금심의위원회 참석자 명단

구분	성명	서명
교직원	박승익	박승익
	변재종	변재종
	오제훈	오제훈
	조을연	조을연
전문가	윤여동	윤여동
	김현채	김현채
학부모	이현수	이현수
학생	이상협	이상협
	정원희	정원희
	서화장	